

LS그룹, 전기차 충전사업 본격 진출 E1과 공동투자해 'LS E-Link' 설립

LS그룹(회장 구자은)이 전기차(EV) 충전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사업에 나선다. LS의 지주회사인 (주)LS는 'EV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 개발'을 위해 신규 법인 LS E-Link(엘에이링크, 대표 김대근)를 E1과 공동 투자해 설립한다고 27일 공시했다.

LS E-Link는 (주)LS와 E1이 각각 50:50으로 출연해 (주)LS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회사다. LS는 LS E-Link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그룹 내 전기차 충전 분야 사업 역량을 집결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LS는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단위 충전소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충전 기술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력 엔지니어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내 1위의 전력 솔루션과 가스 충전소 운영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LS는 LS전선, LS일렉트릭 등 전기·전력 분야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800V 고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용 권선을 양산 중이며 전기차용 고전압 하네스(전기차의 전기 신호를 각 부품에 전달하는 배선), 배터리카 등 생산하고 있다.

원성철 기자 sereno@donga.com

"입원환자 위한 코로나19 감염 방지" 더강한의원, 입원실·편의시설 확충



수원 인계동 더강한의원(원장 한동훈·사진)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 증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증설 공사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입원실 중 1/2인실을 확충했다. 새 병상에는 은은한 밝기의 간접조명과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내외부에 적용했다. 원내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실과 각종 집기도 증설했다. 입원환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입원실에 개인 모니터를 설치하고 침대다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교통사고 이후에 척추관절 질환의 빠른 회복, 피곤함, 무기력함 등과 함께 두통,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후유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한의학적 치료인 추나요법, 한약처방으로 개선 가능하며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라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 부담 없이 한의원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동훈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입원환자들이 병원 생활 중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거나 일상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디지털 전환에 힘 쓰는 CJ그룹

"AI 통합부터 로봇 자동화·스타트업 인수까지"

CJ그룹이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해 11월 '2023 중기비전'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초격차 역량 확보를 통한 미래혁신성장 추구가 핵심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23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중 4조3000억 원을 미래형 혁신기술 및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센터 통해 미래 트렌드 적극 대응 계열사별 AI 인프라와 데이터 통합 AI 전문인력 육성·생태계 활성화 대한통운, 로봇 기반 자동화 등 추진 데모데이 '씨앗' 통해 스타트업 발굴

●그룹 AI 허브, CJ AI센터 오픈

그 시작점으로 2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스퀘어에 CJ AI센터를 개소했다. 신사스퀘어 내 총 4개 층 규모로 연구실, 사무공간, AI쇼룸 등으로 구성했다. 산학협력 및 업계 교류를 위한 외부 연구진, 스타트업 입주공간도 갖췄다.

애플, 야후, 페이스북 등을 거쳐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엔지니어링 조직 리더를 지낸 머신러닝 전문가 이지훈 센터장을 필두로 30여 명의 연구원을 포진했으며, 향후 AI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곳은 CJ그룹의 AI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계열사 비즈니스 난제 해결, 외부 전문가그룹 및 스타트업과의 개방적 협업을 통한 AI생태계 활성화, AI전문인력 육성과 그룹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맡는다.



CJ그룹이 초격차 역량 확보를 통한 미래혁신성장 추구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 AI센터 개소식 테이프 커팅. 사진제공 | CJ

특히 생활문화기업이라는 그룹의 강점을 활용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양질의 빅데이터 기반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식품, 엔터, 물류,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축적된 빅데이터에서 고객의 행동양식을 분석해 더 나은 경험과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지훈 센터장은 "CJ는 수많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AI 연구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며 "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해 한층 발전한 생활문화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차인혁 CJ CDO(최고디지털책임자)는 "AI센터 개설로 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AI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그룹 내 디지털 DNA 확산을 통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CJ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계열사 움직임도 활발

디지털 전환을 향한 계열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2023년까지 2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혁신기술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미래비전을 선언한 CJ 대한통운이 대표적이다. 혁신기술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TES 물류기술 연구소를 중심으로 로봇 기반 현장 자동화, AI 빅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시스템 등을 추진한다.

H&B(헬스&뷰티)스토어 CJ올리브영은 3월 빅데이터 기반 AI 스타트업 '로켓부'를 인수했다. 연간 1억 건을 웃도는 고객 구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로켓부 인수를 통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상품 추천 엔진을 장착해 초개인화 큐레이션 서비스를 본격 선보일 계획이다.

TV홈쇼핑 업체 CJ온스타일은 성우와 쇼호스트를 대신할 수 있는 AI보이스와

AI쇼호스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보이스는 글자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음성 변환하지 않고 감정과 목소리 톤까지 자동 적용하며, AI 쇼호스트는 방송 중 실제 쇼호스트가 웃을 갈아입는 등의 빈 시간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씨앗'도 '디지털 전환'과 연관이 있다. 26일 열린 데모데이에서 상품별 리뷰 키워드 추출 모델을 개발한 '애자일소다'가 대상, AI 연구개발 데이터 자동추출 및 모델 자동 학습 솔루션을 개발한 '씨메스'와 UHD 콘텐츠 AI 리마스터링 서비스를 개발한 '지디에프랩'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회사 측은 "미래 혁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데모데이에 참여한 스타트업에게 CJ 계열사 사업과 연계한 멘토링, 기업 홍보, 투자 유치 기회 모색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우리은행, 600억 원 대형 횡령 사건 파문...내부통제 도마 위에 올랐다

2012년부터 6년간 횡령...27일 자수 역대급 횡령사건에 금감원 조사 착수 과거 우리은행장·경영진 책임 불가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 사진제공 | 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약 6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임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2010, 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한 바 있다.

이 직원은 27일 오후 10시30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우리은행 측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이번 횡령 사건의 규모나 방식 등이 예상치 않은 것으로 보고, 28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감사 체계에 따르면 금융사고와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의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횡령 사건은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기에 자금 관련 통제가 엄격해야 할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한 만큼, 일반 회사의 횡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600억 원대의 금액도 금융 사고로서는 드물게 큰 액수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7개 업종의 금융사 68곳에서 적발된 사기, 횡령·유용, 배임, 도난 등 금융사고는 총 40건으로, 사고 금액은 181억5000만 원이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물론, 내부통제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과거 은행장 등 경영진까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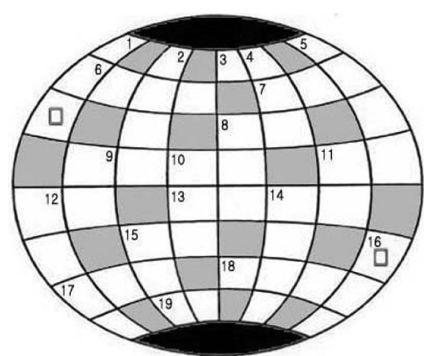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9	6	2		5	
5		6				1		
	2				5		3	
7		4		9				1
1			5		7			4
6				2		5		3
	4		3				1	
		7				3		6
6		1	4	9				

■ 스도쿠정답

9	8	7	6	5	4	3	2	1
5	6	1	2	9	8	7	3	4
6	1	2	9	4	5	8	7	3
8	7	9	1	2	3	4	5	6
4	9	6	7	8	5	1	2	3
1	2	8	6	9	7	5	4	3
2	6	1	7	8	9	4	5	3
4	9	7	2	9	6	1	8	5
8	9	5	1	6	2	9	7	4
6	5	1	2	9	8	7	3	4
8	7	2	5	1	6	4	9	3
9	2	7	6	8	5	1	4	3
5	6	8	9	1	2	7	3	4
1	9	8	5	2	7	6	4	3
7	4	9	1	6	5	9	2	8

■ 낱말문제



■가로 열쇠 03. 배·비행기·차 흔들림에 일어나는 어질증. 06. 마음과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림. 07. 오랫동안 끌어 가며 싸우는 싸움. 08. 사면이 육지로 싸이고 땅이 무뎠다. 09.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게 되는 원인. 11. 물로 손과 열

물을 씻음. 12. 억눌러서 그치게 함. 13. 말·글에 의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됨. 15. 더디게 풀거나 풀리어 나감. 17. 남의 시킴을 받아하는 일. 18.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편다는 뜻. 19. 좋은 일이 있을 조짐.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세로 열쇠 01. 물건 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02.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04. 예상이 닿지 않는 앞일의 선풍. 05. 자기에게만 이롭게 함. 08.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09.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앴. 10. 머리나 허리 부분에 흑색·홍색·청색 등의 띠를 두른 연. 11. 마음을 쓰는 것이 꼼꼼하고 자세함. 12. 대체 무순 생각으로 그런